



보도시점

2026. 7. 27.(월) 배포시

배포

2026. 7. 27.(월) 17:00

국가 농업AX플랫폼 민간참여자 최종 선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 연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7일 국가 농업AX 플랫폼(이하 AX플랫폼) 민간참여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 (컨소시엄 구성) 대동(대표법인), 대동애그테크, LG CNS, 아트팜 영농조합법인, 대영 GS,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등 총 7개 기업·지방정부 참여

농식품부는 2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AX플랫폼 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지난 4월 28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농식품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 방안에 대해 컨소시엄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합의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컨소시엄을 민간참여자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7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컨소시엄은 민·관 공동 출자를 통해 연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국가 농업AX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SPC는 'AI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AI 영농 모델·솔루션 개발, AI 온실 조성, 첨단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 규모와 기술 수준에 따른 AI 서비스를 일반 농가에 확산하는 한편, K-AI 스마트팜 선도모델을 정립하여 해외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농업인이 AI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 AI 확산과 K-AI 스마트팜 선도모델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	책임자	팀 장	차희수 (044-201-2711)
		담당자	사무관	박찬원 (044-201-2713)

